롯데면세점 "이제는 면세 명품 쇼핑도 온라인에서…"

롯데면세점은 세계 최초의 온라인 면세점 명품관 '소공 1번지'를 오픈했다. 패션, 주얼리, 시계 명품 브랜드 30여 개가 입점했으며 약 5000개의 상품을 판매한다. 추후 와인과 위스키 전용관도 만들어 명품 주류 상품의 온라인 예약판매도 진행한다. 롯데면세점은 소공 1번지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을 직접 유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품을 선보인다. 사진제공 | 롯데면세점



이재현 CJ 회장, 4대 성장엔진(C.P.W.S.) 중심 '2023 중기비전' 발표

"문화·플랫폼·웰니스·지속가능성이 키워드"

〈Culture〉 〈Platform〉 〈Wellness〉 〈Sustainability〉

성장엔진 중심으로 '제3 도약' 제시
C - 세계인이 즐기는 것이 목표
P - 생태계 구축 '슈퍼 플랫폼' 육성
W - 개인 토탈 건강 솔루션 제공
S - 미래 탄소자원화 선제적 대비



CJ가 4대 성장엔진을 중심으로 한 '2023 중기비전'을 발표했다. 3일 사내방송을 통해 임직원에게 '2023 중기비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재현 CJ 회장. 사진제공 | CJ

이재현 CJ 회장이 3일 사내 방송을 통해 문화(Culture), 플랫폼(Platform), 웰니스(치유·Wellness),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등 4대 성장엔진(C.P.W.S.)을 중심으로 한 '2023 중기비전'을 발표했다. 이 회장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업비전에 대해 직접 설명한 것은 2010년 '제2의 도약 선언' 이후 11년 만이다.

●2023년까지 10조 원 이상 투자

이 회장은 CJ의 현재를 '성장 정체'로 규정하며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에 주저하며, 인재를 키우고 새롭게 도전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지 못해 미래 대비에 부진했다"고 진단했다. 그룹 미래 비전 수립과 실행이 부족했고 인재확보와 일하는 문화 개선도 미흡했다는 자성과 함께 이대로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생존하기 어렵다는 절박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4대 성장엔진을 중심으로 조직 내 유·무형의 역량을 집중하고, 최고 인재들이 오고 싶어하는 일터를 만들어 '제3의 도약'을 이룬다는 복안을 제시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CJ가 만드는 음식, 음악, 영상 콘텐츠, 뷰티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서비스와 제품을 세계인이 즐기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CJ제일제당은 글로벌 한식 브랜드 비비고를 중심으로 만두, 치킨, K소스 등 글로벌 전략 제품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CJENM 엔터테인먼트 부문은 스튜디오드래곤에 이어 장르별 특화 멀티 스튜디오를 설립해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플랫폼에서는 CJENM, CJ대한통운 등 CJ 계열사가 보유한 디지털 플랫폼과 물류 인프라를 토대로 데이터 기반 고객 중심 경영을 가속화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영토를 확장하고, 장기적으로 CJ만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슈퍼 플랫폼'을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웰니스(치유)는 CJ제일제당의 기존 건강기능식품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차세대 치료제 중심 레드바이오를 확장해 개인맞춤형 토탈 건강 솔루션 제공을 목표로 한다. 최근 마이크로바이옴 기업 '천랩'을 인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바이오 위탁개발생산 분야 진출도 추진한다.

지속가능성에서는 친환경, 신소재, 미래식량 등 혁신기술 기반의 지속가능한 신사업을 육성하고 미래 탄소자원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회사 측은 "4대 성장엔진 중심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까지 총 1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며 "3년 내 그룹 매출 성장의 70%를 4대 성장엔진에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최고 인재 육성과 조직문화 혁신에 주력

최고 인재 확보와 조직문화 혁신에도 주력한다. 인사 조직 혁신은 나이, 연차, 직급을 가리지 않는 인재 발탁과 임직원 스스로 일하는 시·공간, 경력까지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자기주도형 몰입' 환경을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주요 계열사가 이미 부분 도입한 거점 오피스와 재택근무제를 그룹 전반으로 확대한다. 근무 공간과 시간의 유연 근무를 넘어, 직무 특성을 고려해 요일별 근무 시간을 직원 각자가 설계하는 '선택적 근로 시간제'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인재 발탁 기준을 연공서열이 아닌 능력과 의지로 바꾸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임직원이 소속 계열사와 직무에 제한 없이 그룹 내 다양한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잡 포스팅'과 '프로젝트·TF 공모제'를 시행한다. 의지와 잠재력을 보유한 인재들에게 직급과 관계없이 기회를 제공하는 '리더 공모제'도 신설한다.

이 회장은 "다양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그동안 다른 기업에서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보상을 받고, 함께 성장할 일터로 만들겠다"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은 인재다. 인재들이 와서 일하고 싶어하고, 함께 성장하는 CJ를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CJ는 미래와 인재 중심 성장방향을 담은 경영 슬로건으로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듭니다'를 제시했다. 이 회장은 "일상을 항상 건강하고 즐겁게, 전 세계인의 삶을 흥미롭고 아름답게, 지구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 새 지향점"이라며 "트렌드 리딩력, 기술력, 마케팅 등 초격차 역량으로 미래 혁신성장에 집중하고, 이를 주도할 최고 인재들을 위해 조직문화를 혁신해 전 세계인의 새로운 삶을 디자인하는 미래 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안병덕 코오롱 대표이사 부회장(왼쪽)과 윤석진 KIST 원장. 사진제공 | 코오롱

코오롱-KIST "수소·이차전지 개발"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핵심기술도 개발 박차

코오롱그룹이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함께 수소경제, 차세대 이차전지,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핵심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코오롱그룹은 3일 KIST와 미래성장 핵심기술 공동개발 및 인적자원 교류 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안병덕 ㈜코오롱 대표이사 부회장과 윤석진 KIST 원장 등 양측 관계자가 참석했다.

코오롱과 KIST는 수전해 기술을 바탕으로 한 그린수소 생산과 저장을 위한 핵심 소재 개발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지금까지 통상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생산할 때 고가의 희귀금속이 촉매로 쓰였지만,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촉매제 및 핵심 소재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차세대 이차전지와 관련한 4대 핵심소재(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기술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코오롱이 개발하는 신약물질 등에 KIST가 개발한 생체재료를 적용하는 등 기술 상용화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한다.

안병덕 부회장은 "두려움을 모르는 KIST의 첨단 과학기술에 코오롱만의 레거시(legacy)를 더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연구소와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르노삼성자동차 XM3, 5만대 수출 돌파



르노삼성자동차(대표이사 도미닉시뇨라)의 소형 SUV 'XM3(수출명 르노 뉴 아르카나·사진)'가 해외 수출 5만대를 돌파했다. XM3는 지난해 7월 칠레 수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섰으며, 올 3월 유럽 4개국 사전 출시 후 6월부터는 판매 지역을 28개 국가로 확대하고 본격적인 유럽 시장 판매를 이어가고 있다. 아시아 시장과 유럽 시장을 포함한 올해 해외 시장 수출 대수는 총 5만840대이며, 지난해 첫 수출 이후 누적 선적 대수는 5만1749대(11월 3일 기준)다. 도미닉 시뇨라 사장은 "대내외적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이어온 르노삼성자동차만의 엄격한 품질 관리가 유럽 시장에서 XM3가 소비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게 된 이유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왼쪽)과 오세정 서울대 총장. 사진제공 | 현대차

현대차그룹-서울대, 배터리 공동연구센터 설립

현대차그룹과 서울대는 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관악캠퍼스 행정관에서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서울대 오세정 총장 등 양 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차그룹-서울대 배터리 공동연구센터' 설립 및 중장기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현대차그룹-서울대 배터리 공동연구센터는 ▲누구나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연구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연구 ▲한국의 우수 연구진들로 전세계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배터리 연구 등 3가지 비전을 중심으로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중장기 선행 연구를 공동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그룹은 10년간 3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젊고 활기찬 동탄의 새 랜드마크 '화성장지 하나님의 교회'

봉담 등에 이어 화성 여섯 번째 성전
"지역사회 성장 함께하는 보금자리 될 것"

경기 화성의 동탄2신도시에 새로 건립된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이하 하나님의 교회) 새 성전이 2일 입주를 시작했다.

전국에서 30~40대 인구유입이 가장 많은 화성 동탄신도시는 젊고 활기차며 성장잠재력이 높다. 하나님의 교회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와 함께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새 보금자리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화성장지 하나님의 교회'는 봉담과 병점, 동탄, 향남에 이어 화성에 건립되는 여섯 번째 성전이다.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1350㎡ 규모인 건물은 하얀 대리석과 까만 석재, 붉은 벽돌로 공간을 나눈 조형미가 돋보인다.

주변의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간결한 건축미도 보는 이들을 기분 좋게 한다. 화성시 유일의 보전용지인 장지저수지와 인접한 이 교회는 내년 말 조성될 장지생태공원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휴식과 힐링을 위한 공간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인다.

교회 앞 차도와 인접한 공간을 개방해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배려한 점이나 1층에 휴게공간을 만들어 편안한 쉼터를 마련한 것도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화합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단계적이긴 하나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싹트는 요즘이다. 이런 때 화성시의 밝은 미래와 성장을 견인할 장지동에 새 성전이 자리하게 돼 뜻깊다"고 말한 하나님의 교회 강옥춘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안에서 모든 시민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지역민과 함께하는 안식처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세계 175개국, 7500여 교회, 320만 신자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다. 화성에서도 교회가 들어선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정화와 제설작업, 헌혈 등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포도가 특산물인 송산면에서는 일손이 부족한 과수농가를 찾아 일손을 보탰고, 노인요양병원이나 장애인거주시설을 방문해 청소와 산책 등을 지원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명절 때마다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가운데 지난 추석에도 봉담읍, 향남읍, 동탄6동, 병점2동 등의 취약계층에게 식료품세트를 전달했다.

한편 2일 첫 예배를 드린 경북 '영덕 하나님의 교회'는 연면적 1539㎡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과거 지방교육청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2018년 태풍 콩레이로 영덕군이 막대한 피해를 당했을 당시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이 대규모 수해복구를 진행한 인연이 있어 이번 교회 건립은 더 뜻깊다.

이 교회 신자들은 앞으로도 새 성전을 중심으로 경북 곳곳에서 다양한 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건립된 '화성장지 하나님의 교회'(왼쪽)와 2일 첫 예배를 드린 '영덕 하나님의 교회'. 사진제공 |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